

포커스-e제품

내셔널지오그래픽 신개념의 'WALKABOUT' 컬렉션 출시

세기P&C(주), 가방 7종·삼각대 등 신제품 발표회 가져

●●● 취재 | 박지연 기자 |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국내 총판 세기P&C(대표·이봉훈, www.saeki.co.kr)는 지난 1월 20일 충무로점 4층 포토스쿨에서 내셔널지오그래픽 신제품 발표회를 갖고 가방 신제품을 선보였다.

기존의 내셔널지오그래픽 제품이 탐험정신과 도전정신을 담아왔다. 그러나 이날 선보인 7종의 신제품 WALKABOUT은 활동적인 도시인의 창조정신을 결집한 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다.

출시된 제품은 ▶홀스터 형태의 NGW2021, 2025 ▶솔더백 형태의 NGW2140, 2160 ▶백팩 형태의 NGW5050, 5070 ▶토티백 형태의 NGW8120 등 총 4개 형태의 7종이다.

크기는 토티백인 NGW8120을 제외하고 각각 익스플로러 시리즈와 대응한다. NGW2140은 NG2345, NGW2160은

NG2475, NGW5050은 NG5159, NGW5070은 NG5162와 같거나 비슷한 크기이다.

이 제품들은 내셔널지오그래픽 가방 프로젝트의 제조 신념과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도 도시를 누비는 현대인에게도 어울리도록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재질은 기존 시리즈, 익스플로러(Explorer) 시리즈라 하여 이들과 같이 얇고 가벼운 코튼캔버스를 기반으로 한다. 익스플로러 시리즈에서도 안감으로는 폴리에스터 립스탑이 쓰였는데, 워크어바웃 시리즈 역시 안감에 합성섬유가 들어갔다. 이번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을 연속 배열한 무늬를 넣어 제품을 강조했다. 기능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는데 관심이 많은 젊고, 패션에 관심을 두는 많은 현대의 고객에게까지 초점을 두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국내 총판 세기P&C는 지난 1월 20일 충무로점 4층 포토스쿨에서 새로운 개념의 '워크어바웃'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워크어바웃' 시리즈는 패션에 관심 많은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삼아 전통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면서도 도시인의 활동적인 일상에서의 모험을 돕는다는 컨셉트로 디자인됐다.

세기P&G 관계자는 “좀더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의 WALKABOUT은 새로운 색상, 새로운 디자인의 유형이며, 새로운 기회를 불러일으킬 제품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